

원창희(부산상고1) 53회 동기) 1차 구술

1. 구술자: 원창희
2. 면담자: 강희영
3. 촬영자: 이대희
4. 구술일자: 2011년 8월 5일
5. 구술장소: 부산 사상구 구술자 사무실
6. 구술분량: 08분 15초 / 일부 공개
7. 주요내용: 대통령 당선 이후 고교동기와 호칭에 얽힌 에피소드

구술자 : 대통령 딱 되고나니까 경호하고 이런 게 당선되니까 [생겼죠]. 야, 이거 뭐 내가 명륜동²⁾에, 그때 겨울³⁾ 되게 추웠잖아. 그때 무슨 보고할 일이 있어, 후배가 노동문제 관련해서 보고할[게 있다고], 그러니까는 내보고 ‘아 선배 좀 같이 가입시더’ 해. 이 친구가 그때 소위 조선족 출신들 한국에 [사는], 고거를 이 친구가 조율 담당을 해가지고. 나중에 되면 조선족 관계 이래가지고 지금 거하잖아요(문제가 되잖아요). 그 친구가 고거를 어디 가서 가(가져) 왔더라고. [명륜동으로] 가니까 들어가는 골목부터 시작해서 야 이거 뭐 [경호가] 굉장하더라고. ‘앞으로 참 만나기 힘들겠구나.’ 그래 갔어. 그래가지고 이야기하고 떡국 한 그릇 얻어먹고 내려오는데 내보고 권[양숙] 여사가 수삼을 갖다가 내보고 보따리에 싸가(싸서) 주시더라고. [고생]했다고 몸보신하라고. 내가 이걸 가서 술을 담가가지고 다음에 [노 대통령] 퇴임하고 나면 그때 한잔 하자고. 진짜로 가서 그걸 갖다 전부 술을 담았어. 진짜 그걸 그때(퇴임할 때)까지 짝 담아놨었거든, 지금도 있어요.

그라고 인제(이제) 부산에, 마지막으로 부산 경남 울산 여기 분들 그거(축하) 해주러 온다고 왔어. 저녁 만찬을 한 사백(400)명 모아놨는데 그날 [노 대통령한테] 전화가 왔어. 나는 그때만 해도 막연[히 생각]한 게 ‘친구가 대통령 돼가(돼서) 청와대에 가면 한 오(5)년 못 만나겠구나’ 그 생각만 막연히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. 내보고 롯데호텔로 몇 시까지 오라는 거야. 만찬 시간은 여섯 시가 그리 되어있거든. 한 네 시 전

1) 현재는 개성고등학교

2) 서울 종로구 명륜동.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자택이 있던 곳.

3) 당선자 시절인 2003년 1월경으로 추정됨

에 오라는 거야. 두 시간 전에. 알았다고, 갔어. 가니까 경호원들이 안내를 하더라고 [노 대통령은] 좀 쉬고 있더라고, 상공회의소 방문하고 이래가지고. [같이] 앉아가(앉아서) ‘왔나?’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, 소위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[하는 중에] 그럼 앞으로, 그래서 내가 제일 궁금한 거 ‘야 [네가] 대통령 됐는데, 대통령인데 첫째 내가 앞으로 대통령 만나면 말을 올려야 되냐 내려야 되냐?’ [웃음] 궁금하잖아. 내가 올려야 되냐 내려야 되냐. [노 대통령이] ‘우리아 친군데 뭐 평소대로 하면 되지 뭐’ 그래. 일설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을 올려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,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야 [하니까] 올려야 된다는 친구도 있고. 어떤 사람은 친구가 말을 올리면 멀어진다고 그래가지고 [내리라는] 사람도 있고 그리하는데 그러니까 [노 대통령이] ‘하이고, 말 놓고 지내고 하든 되고’ 그래서 내가 ‘그럼 알겠는데 내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을 올리겠다’ 이 정도로 딱 하고. 두 번째. ‘앞으로 연락 할라든 어떻게 하든 되냐. 어떻게 만나냐.’ ‘어? 그거 연락? 청와대로 연락하면 돼.’ ‘청와대는 내 전화번호도 모르고, 청와대 어데 바꿔주겠냐.’ ‘아 그래?’ 여택수가 그때 수행하고 있더라고 ‘여택수 이리 와봐라. 내 원[창희] 사장하고 다음에 연락을 할라카든 내 어짜면 되냐’ 이래. [웃음] 그러니까 여택수 이야기가 ‘제 휴대폰으로 전화 주십시오.’ ‘아 그람(그러면) 되겠다. 참, 그람 되겠다. 그라모 내가 저하면(전달받으면) 이십사(24) 시간 이내에 내가 응답할게. 이십사(24) 시간 이내.’ 다음에 또 뭐 그런저런 이야기 [나누고] 그래가 인제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그랬는데.

진짜로 맨날, 사실 전화로 이래 가끔 오면 격려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해보면 진짜로 ‘지금 회의 중인데’ 그라운 회의 끝나고 나면 전화 주고. 근데 한 번도 한 번도 이십사(24) 시간 어긴 일이 없어. 그래서 내가 약속 그거 [대단하다], 근데 나중엔 미안터라고 전화하기가.[웃음] 그리고 사실은 가서, 내가 청와대에 무슨 뭐 있다, 요새 뭐 [기사가] 나더라, 탄핵 당했다... 좀 위로해줘야 되겠다 카면, 가면 한 번도 내가 며칠날 어레인지(Arrange, 약속을 잡는 일) 해가지고 한 번도 거절당한 일이 없어. 그래 우리 총무 비서가 그러잖아, 정상문⁴⁾ 씨가. ‘희한하다’ 고. 다른 사람 뭐 이래 하든 이게 좀 이렇고 저렇고 뒤로 밀리기도 하고 안 되기도 [하고] 이러는데. 야 니만, 니 이야기만 하면 무조건 오케이(OK)다’ 이거

4)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. 구술자와는 1946년생 동갑내기다.

야. 아무래도 이상하다고. 자기는 신기하다는 거야. 내보고 ‘니 한번 왔다가고 나모(나면) 한 일(1)주일 정도는 [노 대통령] 표정이, 기분이 좋다’ 그래요. 그니까 ‘야, 니 자주 온나. 자주.’ 근데 뭐 꺼리가 있어 야 자주 오지. 그래서 하여튼 가만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그래도 한두 달에, 최소한도 한두 달에 한 번은 꼭 가서 밥 얻어먹고 온 거 같애. 어떤 때는 사전 약속 없이, 우찌 갔다가 ‘대통령 뭐 한번 뵈 수 있을라나. 전화 한번 해봐’ 그래가지고 [청와대에] 전화하면 올라오라 그래.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라고 집무실을 인자 처음 함(한번) 구경을 하는 날이었어. 집무실은, 누가 그러더라고 ‘야 집무실은 말이야, 그 올라가는데 굉장히 위압감 든다’ 이라더라고. 그래 갔어. 근데 그런 거 별로 없더라고. 집무실 갔어. 집무실 갔으니까, 내가 집무실이니까 말을 올려야 되겠다 싶었어. [웃음] 공적인 자리에. 그래 내가 말을 올렸어. 자기도(노 대통령도) 말을 탁 올렸어. [노 대통령이] ‘야야, 야 [이리로] 온나’ 쪽방이, 옆에 쪽방이 있더라고. 쪽방에 가서 ‘야 담배 한 대 [주라]. 야, 말 올리니까 이 해(혀) 물리겠다 이거. 말이 안 된다. 말 놓고 하자.’ [그렇게] 이야기했습니다.

■ 구술자 주요이력

1947. 경남 거제 출생

1966.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

1974. 동아대학교 학사

1981.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

1967. - 1977. 국세청 근무

1977. - 1993. 창영금속 (주)오너가공 등 금속제품 제조 및 기계제조업 경영
(양산, 창원 공단)

2001. - 2002.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시 부산상고 총동창회 총괄
부산 선거대책본부 국민참여운동본부 공동본부장
노무현재단 운영위원, 부산지역위원회 고문 (2016년 현재)

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53회 동기이다. 졸업 후 동기 노무현이 울산에서 막

노동을 하다 크게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만난다. 그때부터 고시공부를 하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치계에 입문,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이 되고 퇴임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든 과정을 지근거리에서 함께했다.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부산상고 총동창회를 총괄하며 부산 선대본부 국민참여운동본부장으로 활동한 것을 비롯, 주요 시기마다 있는 힘껏 도와준 죽마고우다.